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학생성명: 김강일 (신대원 108기)
수학기간: 2013년 8월 ~ 2014년 6월

지난 약 1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교환학생 생활을 건강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환학생 생활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들이나 사람들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푸른 날씨와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땅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중요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학업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는 미국 장로교인 PC-USA에 소속된 신학교이다.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와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8개의 신학교로 구성된 GTU (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산하 신학교라는 점에서 GTU에 소속된 다른 신학교들의 수업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GTU 내에는 장로교 신학교 뿐 아니라 침례교, 예수회, 루터교 등 여러 교단으로 이루어진 신학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수업을 통하여 다른 교단의 신학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신학적 스펙트럼은 다양하여 GTU내 신학교들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 배경 속에서 열린 마음과 신학적 분별력을 갖고 공부에 임한다면 그만큼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나는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주로 언어와 연관된 과목을 수강하여 들었는데 과전된 2학기 동안 총 8과목을 수강하였다.

수강과목 (총 8과목, 19학점)

학기	과목	학점	학교	담당교수
2013 Fall	Ecclesiastical Latin I	3	JST-GTU	Raymond Kania
2013 Fall	Biblical Hebrew	3	PSR-GTU	Marla Porter
2013 Fall	Theological Writing	1.5	ABSW-GTU	Jeff Kunkel
2013 Fall	Advanced Academic English	1.5	SFTS	Heather Weidemann
2014 Spring	Ecclesiastical Latin II	3	CDSP-GTU	Raymond Kania
2014 Spring	Earliest Christians & Christ	3	ABSW-GTU	Margaret McManus
2014 Spring	Introduction to Preaching	3	SFTS	Jana Childers
2014 Spring	Readings in Biblical Hebrew	1	SFTS	Annette Schellenberg

수강했던 수업들 대체로 흥미로웠고 유익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Base-camp를 치고 버클리 지역에 있는 GTU의 신학교들로 branch-out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GTU내의 8개 신학교 중 5개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다. 그곳으로 수업을 들으러 나갈 때는 학교 School Van을 타고 수업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다.

1년간 수강했던 Ecclesiastical Latin (교회 라틴어) 수업은 본인이 교환학생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과목이었다. 한국에서도 라틴어를 공부했지만 안 쓰면 금방 잊는 언어의 특성 때문에 이번 기회에 라틴어를 확실하게 익혀놓는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다. 1년간 라틴어를 지도해주신 Raymond Kania 교수님은 UC 버클리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등의 고전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고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신다. 매주 이어지는 Quiz와 기말시험을 준비하며 약간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언어의 지혜를 구하며 최대한 이 시간을 즐기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핵심 수업이었던 Introduction to Preaching (설교 입문) 수업을 통해 수업 중 영어 설교를 직접 6번 해보며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어 유익했다. 물론 설교 준비와 스크립트 암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기존에 익숙하게 들어온 전통적인 설교 패러다임에서 조금 벗어난 방법들도 배울 수 있어 흥미로웠다. 다음으로, Earliest Christians & Christ (초기 기독교인과 그리스도) 수업은 여러 저널에 실린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읽고 교수님과 100% 토론하는 수업이었다. 토론 중 서로 다양한 시각들을 나누며 지평을 넓히고 본인의 시각도 새롭게 다듬을 수 있어 역시 흥미진진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계시는 스위스 출신의 Annette Schellenberg 교수님으로부터 히브리어 강독 수업도 들었다. 나의 짧은 독일어 회화 실력으로 조금씩 독일어 대화도 해보고 히브리어의 감도 다시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수업이 Jeff Kunkel 교수님과 함께 한 Theological Writing (신학 글쓰기) 수업인데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감사한 시간이었다.

2. 생활

학교 분위기: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San Anselmo (샌안셀모)에 위치한다. 샌안셀모는 조용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동네이다. 동네를 걸어가다 보면 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백인 노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싱글로 왔을 경우, 가족이 없거나 바깥 지역으로 나갈 때 필요한 자동차가 없으면 다소 심심할 수도 있다. 물론 가끔씩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버스가 지나가긴 하지만 거리 이동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버클리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로 나가서 수업을 듣는 방법을 택했다. 버클리 지역은 UC 버클리 대학이 있는 대학가이기에 젊은 층들이 많이 있어 샌안셀모 지역보다는 뭔가 더 활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도 샌안셀모가 가진 매력이 있는데, 그것은 캠퍼스 안에 다람쥐, 너구리, 사슴들이 뛰어다니며 실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이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날씨가 겨울 중에 내리는 우기 시즌을 제외하고는 습도도 거의 없고 늘 푸른 하늘의 연속이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나할 정도로 감탄이 절로 나온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안에 D.Min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한국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다. 그래서 D.Min 과정의 목사님 가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가끔씩 가족 행사 또는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서로 교제하곤 한다. 한번은, 이곳에서 공부하시는 한인 목사님 가정에 초대되어 K-POP 스타 시즌 3를 함께 관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기타 교실을 열어주셔서 기타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재정 사항: 재정 사항은 크게 학비, 생활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환학생의 이점은 1년간 학비가 면제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 등의 생활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는 샌 안셀모의 Oxtoby Hall에서 살았는데 한 달 기숙사비가 471 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0만원 가까이 정도 들었다. 그리고 식비나 여러 잡화비가 드는 것을 고려할 때 한 달에 약 80~1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식비의 경우, 음식을 자주 사먹기 보다는 필요한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3. 여행

내가 교환학생으로 와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여행이었다. 첫 가을 학기를 마친 뒤에는 토론토에 계시는 친척집에 2주간 있으면서 토론토 ROM 박물관,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했다. 그리고 시애틀 친구 집에 가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스타벅스 1호점, Boeing 박물관, Space Needle 등 주요 명소들을 돌아다녔다. 겨울여행의 마지막으로는 LA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하여 한인 타운, 할리우드 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다녀왔다. 미주 내에서 여행하는 것은 비행기 값이 저렴하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있어서 여행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부담이 덜 들었다. 학기 중에도 가끔씩 목사님들이 차로 ride 해주셔서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및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었다. 두 번째 봄 학기를 마친 뒤에는 동부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하여 뉴욕에 있는 Empire State Building, UN 본부, 타임스퀘어와 자유의 여신상 등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는 정말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4. 소감

보통 교환학생을 지원하면서 얻고자 기대하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과 다양한 신학 공부를 통한 지평의 확대이다. 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금, 영어 실력이 향상 되었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감히 '자신감'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한국에서만 계속 살다가 타지에서 1년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고 공부하다보니 영어 실력 향상보다는 자신감이 남아있다. 생각해보면 영어는 삶에 있어 하나의 스킬이지만 자신감은 그것을 다스리는 마인드인 것 같다. 자신감이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영어는 물론 다른 인생의 도전에도 응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